

그림 · 문병성

### 박영재 교수의 침단 과학과 불교

#### 주5일 근무-주2일 휴일

선진국들이 21세기가 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연구분야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해 사고, 학습 및 자기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공지능 로봇 분야가 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닮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동작과 같은 동작을 하는 기계도 로봇이라고 부른다.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 또는 아주 단순한 작업 등 모두 인간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로봇의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3조 6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2011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인간친화형 산업로봇과 가사 육아 교육 간호 수술 등을 담당할 인간지능 서비스 로봇, 전투 인명구조 원자로 해체 우주개발 등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국가전략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듯 인간이 어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정교해질수록 인간의 여가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던 '주5일 근무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급용권부터 지난 7월1일부터 도입되었고, 점차 확대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올해 들어 불교계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여, '주5일 근무제'에 관해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 포교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숨쉬고 있는 깊은 산속의 산사는 여행과 체험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찰 개방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 수행 정도에 맞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문화재 도난 대비,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 사찰 중심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각종 지역축제와 주말농장의 연계 등 적극적인 대국민 포교 방식의 변화를 통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교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편 카톨릭의 경우 3월 초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사목적 대응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각 교구들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산교

로는 전원에 위치한 시설을 활용하는 '주말교회'와 '전원교회' 등이 있다. 그런데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대체로 '주5일 근무제'에 관해 휴일인 '주2일'에 초점을 맞추어 종교계가 활발한 포교의 계기로 활동하려 하고 있으나 '주2일' 휴일을 위해 수행자적인 철저한 '주5일근무'

#### 종교계 '주2일 휴무'에만 관심집중 '수행자적 주5일근무정신' 필요한 때

구는 미사 시간 다양화, 성당에 보육 시설 설치, 가족 단위 주말 프로그램 개발, 원주교구는 성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 사목'의 강화를, 춘천교구는 '가족 피정'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한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개신교계도 이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신교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해결 방안으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판단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 휴식(休息)의 뜻을 바르게 잘 새긴다면 소중한 '주2일'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휴(休)'란 글자는 '人+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息)'이란 글자는 '自+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그냥 멍청하게 몸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로 쉬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간화선(禪) 수행을 이십 칠 년 이상 행하다 보니 화두도 나라는 아집도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온몸에 다음과 같은 글귀 하나만 새겨지게 되었다.

'해뜨면 곧 일하고 해지면 곧 쉬다 (日出則作 日沒則息)'

우리는 모두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일터로 일을 하러 간다. 그러나 그 일을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만 한다면 말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낮에는 일하는 동안 모든 관심의 대상이 밖으로만 향했었으니 밤에는 모든 관심의 초점을 자기 마음에 두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드르고 흔들리던 자기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맑고 투명한 거울 같은 마음을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해뜨면 열심히 일터에서 자기의 능력을 유감없이 나누어, 주6일 근무 때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한 낮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밤이 오면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뜻을 철저히 되새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밤낮 구별 없이 '일이 곧 쉬(作則息)이고 쉬가 곧 일(息則作)'이라는 그런 확고한 경계가 서게 되어 '주5일근무'와 '주2일휴일'이란 이원적 분별심도 다 놓아 버리게 되리라!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jypark@ccs.sogang.ac.kr

### 이렇게 들었다

#### 양심과 윤리 따라야

##### 공무원 행동강령(안)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내놓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권고안'을 보면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가족비리 공무원을 징계하고, 부고·청첩장에 직장 직급을 기재해서도 안되며, 부업의 경우도 연봉의 30% 이상에 해당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현실성 없는 과사용 방지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미더움이 제대로 가지 않는 이유는 현 정권의 권력비리 탓이다. 현 정권은 이미 지난 99년 부패추방을 내걸고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대통령 아들들은 이를 비웃듯 검은 돈을 긁어모았다.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과 강령이 없어서가 아니다. 관련법과 단속방안은 넘쳐난다. 비리는 권력 실세들이 저지르고 죄는 선의의 공무원들에게 덮여주는 이런 '행동강령'과 같은 발상이 바로 권력비리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실책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회절서와 원칙을 준수하며 양심과 윤리에 따라 생활하는 구성원 각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과(因果)의 가르침을 전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나니 차라리 손을 끊을 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군을 키워야 한다.”

<능엄경>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 지언정, 의(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잔꾀를 부리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일이다.”

<법구경>

다장부라면 지금 바야흐로 본래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 생각 치달려 구하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실 줄을 모른다. 예컨대 원돈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에서 범(凡)을 싫어하고 성(聖)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으니 깨닫나 더럽니 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선종(禪宗)의 견해라면 그렇게 알아서, 바로 지금일 뿐 다시 어떤 시절도 없다. 나의 말은 모두 한 때의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방편일 뿐이고, 실법(實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잠깐 출가해서 매일 단 낭의 황금이라도 쓸 자료가 있다.

법다운(如法) 입장이라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어떤 태도도 취할 수가 없다. 법은 어떤 정해진 말이나 모습과는 상관없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떻게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은 알고 모르고와도 상관없이 있다. 법으로 말하자면 바로 지금 이렇게 명백하지만, 이렇게 명백하다고 말하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그런데 범부의 경우 그 의식의 특징

확인하려는 경향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다른 이름과 차별되지 받아들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을 다른 것들과 차별되지 이해할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외에 달리 어떻게 받아들

면, 아무리 하여도 그 이름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을 말하면,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되는 이름과 사물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아서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②

#### 본래 일이 없다

### 지금일 뿐, 다시 어떤 시절도 없다

은, 어떤 이름이 있을 경우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맡아 보거나 입으로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거나 머리 속으로 상상해 보아서 다른 것들과는 차별되지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이와 같이 익숙한 습관에 따라 차별되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차별되는 사물로 이해하려 한다

들도 차별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여러 개의 가지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한 개 줄기와 같고, 온갖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한 덩어리 찰흙과 같으며, 노란 색

과 빨간 색을 구분해 보기 이전의 다만 보는 그것과 같고, 도레미파를 구분해 듣기 이전의 다만 듣는 그것과 같으며, 향기와 악취를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맡아 보는 그것과 같고, 단맛과 쓴맛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맛보는 그것과 같으며, 부드러운 것과 거칠거칠함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감촉하는 그것과 같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구분하기 이전의 다만 생각하는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이름을 말하고 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 이미 도니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바로 그 지리에 있다. 따라서 이름을 말하고 그 뜻을 헤아리면 눈을 가지고 눈을 찾아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법을 아는 자는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만(卍)자의 의미 Meaning of the swastika(卍) in Buddhism

When Buddha attained enlightenment under the sala tree, the weeds he was sitting on were called 'weeds of good fortune' which were pressed into the shape of a swastika. Later on, a swastika, representing the 'weeds of good fortune', became a symbol of Buddhism. The swastika is a symbol of peace, harmony and good luck.

석가모니 부처가 브리수아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가 앉았던 곳의 풀들이 만(卍)자 모양으로 눌러져 있어 이를 '행운의 풀'이라 불렀다. 이후 만자는 '행운의 풀'을 나타내게 되었고 불교의 상징물이 되었다. 만자는 평화와 조화, 행운을 상징한다

The swastika is used as a symbol denoting Buddhism and temple locations. The swastika is an ancient and mystical religious symbol adopted from India, and stands for happiness and virtue.

만자는 불교와 사찰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만자는 행복과 덕행을 나타내는 오랜 종교상의 신앙적 상징물로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다.

##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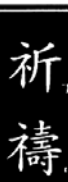
####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x6판 / 값 3,500원

####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 소름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 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극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 미타신앙 · 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회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참회 · 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달라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